

월요광장



이승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교통,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인식 변화에 따라 우리는 탈가족, 탈종교, 탈국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4000 가구였으나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414만 2000 가구로 86.2% 증가했다. 통계청은 2012년에는 453만9000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3.9%이고, 2012년에는 25.3%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것이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지만 탈가족 현상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

나라사랑 국민교육이 필요하다

고 있다.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도 없고, 신자도 계속 줄어든다. 성당에는 신부가 없애 한 신부가 여러 성당을 돌아다니며 미사를 올리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우리는 국제화를 넘어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를 맞았다. 그에 따라 국가, 국경이 이전만큼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재외동포가 720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인, 외국 인근로자 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선 지도 오래다.

이런 현상을 보면 프랑스의 석학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가 저서 ‘호모 노마드(Homo Nomad 유태하는 인간)’에서 “21 세기는 유태민족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인간이 대거 출현하게 된다”는 전망이 맞는 것 같아 흥미롭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나는 오랫동안 다양한 국적, 종교, 신념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과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은 사회적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민족이 빠진 세계화는 위태롭다는 점이다. 아무리 탈국가 세계화 시대라도 민족의 정서와 문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계인들과 나눌 우리의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교류가 깊지고, 세계화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 것이 없으면 남의 것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세계화 시대라 하여 전 세계가 영어만 쓰고, 미국 영화만 보고, 빵과 스테이크를 주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에게서 한국의 철학, 우리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배우고 싶어한다. 여러 나라에 단락을 보급하면서 나는 이를 매우 실감한다.

“민족”을 강조하면 곧바로 민족우월주의나 국수주의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하다. 민족이 빠진 세계화는 정신의 노예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기에 처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 현 상황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나라사랑, 즉 애국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사랑 국민교육원이 표방한 것처럼 “애국이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나와 가정, 사회, 나라까지 큰 사랑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사랑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애국충절의 고장 광주·전남에서조차 이러한 나라사랑 국민교육에 많은 사람이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

법조칼럼



강선주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일과 육아로 인하여 1년에 한번 영화보기도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요즈음 주1회 영화를 볼 수 있는 작은 여유 시간이 생겼다. 바로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 근무처인 광주에서 집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의 3 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다. 비록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보면서 이어폰으로 듣는 것이지만 점점 메달라 가는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작은 만(灘) 사이에 두고 건너편 저택의 초록 빛빛을 응시하던 제이 개츠비의 뒷

사랑, 위대할 수만은 없는

모습이 무척이나 낭만적이던, 그러나 그만 큼 더 슬퍼 보이던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얼마 전 보았다. 미국 작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영화화 한 이 작품은 그 배경이 1920년대의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데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개츠비 역)를 비롯하여 캐리 멀리건(데이지 뷰캐넌 역), 토비 맥과이어(니 캐러웨이 역) 등 배우들의 열연에 현대적 감각에 맞춘 음악과 편집의 힘이 더해져 감상하는 내내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건너편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개츠비가 사랑하는 데이지 뷰캐넌. 개츠비는 이미 다른 남자(툼 뷰캐넌)와 결혼한 옛 연인 데이지를 잊지 못해 데이지의 저택 맞은편에 커다란 저택을 지어 놓고 매일 밤 성대한 파티를 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자신의 이웃이자 데이지의 사촌인 니 캐러웨이의 도움으로 데이지를 다시 만나게 된 개츠비는 변하지 않은 자신의 사랑을 전하며 톰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지만, 톰에 의해 밝혀진 개

츠비의 비밀(서민 출신에 불법적인 일로 재산을 모은 것 등)에 데이지는 주저 없이 다시 한번 개츠비를 떠나 톰의 곁에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츠비는 데이지가 운전 중 뺑소니 사망 사고를 저지르자 데이지를 보호하고자 자신이 낸 사고라고 덮으려 하다가 그 사고로 사망한 여자의 남편에 의해 죽음을 맞는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개츠비의 데이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현신에 감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사랑을 정취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발을 담근 개츠비의 행동에 무조건 박수를 보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애초부터 신분이 달랐던 개츠비와 데이지, 데이지는 개츠비와 헤어진 다음해에 시카고 부호의 아들이자 상류사회 일원인 톰 뷰캐넌과 결혼한다. 이에 개츠비는 데이지를 얻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돈(富)을 축적하기로 마음먹은 후 불법 밀주 판매와 도박 등을 통하여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오로지 자신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았

던 개츠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대명제를 굳이 들이대지 않더라도 개츠비의 선택은 옳게 보이지 않는다.

영화의 화자인 니 캐러웨이는 영화의 끝에 “개츠비 당신은 데이지나 그녀의 남편 톰 뷰캐넌 등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개츠비를 회상하지만 만일 필자가 개츠비의 범법행위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아마도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대답은 엄마에게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그 사랑이 이루기 위해 개츠비가 행했을 범법행위로 인한 폐해는 그 무게가 결코 개츠비의 사랑보다 가볍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츠비가 자신이 한 범법행위에 발목이 잡혀 데이지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영화의 결말도 이를 반영한 결론일 것이며, 이것이 영화의 제목과 달리 개츠비의 사랑이 위대하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社說

광주 구청들, 노인복지마저 외면해서야

광주에서 매년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8만여 명이 무료 독감예방접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구청이 애초 접종 대상자 명표를 50% 안팎으로 줄이면서 홍보를 소홀히 하는 등 수준 이하의 의료행정 서비스를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의 경우 노인 18만3737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지만 접종률은 54%(9만9159명)에 머물러 나머지 8만4578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5개 구청이 전체 대상자의 50%인 9만2000명을 목표로 정하고, 8억여 원의 예산만 세운 것이다. 5억9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8만여 명이 소외됐다니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일반병원에서 1인당 2만5000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접종비에도 접종률이 절반에 그친 것은 비용이 대부분 구청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청별로 평균 일주일씩 1~4곳의 장소를 정해 집단 접종을 하다 보니 하루 최대 1000명이 넘는 접종자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대상자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져 무료 접종을 사실상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접종일과 장소를 구청 홈페이지 고지와 통장들이 구두로 알렸으나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고, 연령이 안 될 경우 ‘그림의 떡’일 것이다.

이는 노인들에게 자비로 접종을 하라는 것이고, 아니면 몸으로 때우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전남도에 22개 시·군의 100% 목표 설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다. 내년에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해 반드시 전체 대상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

법의노조 전교조 대화로 문제 풀어야 한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해석하는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전교조는 즉각 강경대응을 천명함에 따라 자칫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는 우려도 날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 조치로 단체협약 체결권 상실과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합법적인 지원 철회 등으로 임지가 크게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전교조는 쫓발 같게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사가 참여한 교육계의 학부모들 향후 전개될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급히 노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지나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전교조 역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시각이 함께 존재한다.

정부가 전교조 어느 한쪽이 선뜻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여부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돼 공동수업이나 연가투쟁이라도 들어간다면 상처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교조는 향후 행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심각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양측간 대화를 주도함으로써 이른 시일 안에 전교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교조와 정부, 노사정위원회는 진지한 자세로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기고



김병구
전 고흥백양중 교장·수필가

한 국가의 장래를 보려거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요즘 활용되는 창조란 말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더욱더 강조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이란 넓게 보면 비전(Vision) 교육이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상상력과 통찰력이다. 오늘의 교육 현실은 창의력을 집어던지고 지식 전달의 교육이요, 전체교육의 허방한 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란 이렇게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 상상력은 창조성을 길러내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길러야 하고 여기에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시험 점수가 무한경쟁의 기준이 되고 전인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가 임시준

교육은 나라의 운명이다

비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지식 전달의 출세 지향적 교육에 오염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또한 어머니들이 앞장서고 참고서와 학원이 교육권을 넘겨주면서 학교보다 학원이 더 경쟁력을 갖는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뿐이다.

이렇게 창의력을 찾아볼 수 없는 암기 위주의 교육은 생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학원에서 불(Boom)을 일으키고 있는 입시 설명회에 학부모, 학생, 교사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력은 깊은 사색을 전제로 한다. 야외에 나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숲 쉬어 보자. 자녀의 손을 잡고 밤 하늘의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세면서 내 머리 위로 반짝이는 별빛은 그저 신기할 뿐이다. 자녀의 가슴에 감성의 물결이 일고 시(詩)가 흐르며 철학적 분위기에 젖을 때 창의력은 돌아나지 않을가. 이제는 교실의 칠판을 걷어내고 눈을 자연으로 돌려보자.

나는 새 학년이 시작되면 첫 시간의 수업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

첫째, ‘바다는 생물인가, 무생물인가’, 무척 모든다고 생각되는 질문이다.

모든 학생들이 ‘무생물’이라는 아주 간편하고 쉬운 정답을 내놓는다. 그러나 다른 대

답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즉 바다의 자신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기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다는 생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가.

둘째, 문 앞에 높이 걸려 있는 깃발이 휘날리는 것은 무엇에 의한 자국 때문일까.

누구나 쉽게 바람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렇지만 바람 때문만도 아니고 깃발이 휘날리는 것도 아니라면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세 가지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을 법하다.

즉, 마음(心)이란 변하기 쉽기 때문에 가변성의 철학에서 다양성을 강조한 말로 해석되어도 좋을 듯하다.

셋째, 자기가 사는 마을이나 학교에 자라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친구로 삼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나무와 대화를 나누다니, 이 과제를 놓고 고민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학생은 무척 재미있는 과제라고 신이 나는 모양이다. 식물이란 사람처럼 사람과 미물의 감정이 있음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설명했기에 대화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몇 해 전 봄날 학생들과 함께 백양사(백암산)로 식물 채집에 나섰다. 예쁘게 피어난 은방울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때에 등산 가방을 멘 젊은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 아들은 이를 모를 풀꽃들을 쳐다보면서 발걸음 멈춘다. ‘아빠 이게 무슨 꽃이야’ 그러나 그 대답은 엄마에게로 넘어갔으나 엄마 역시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를 불러 숲 속에 피어 있는 식물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이것은 은방울꽃 저것은 동굴래, 그리고 꿀풀, 영경귀, 금당화 등 볼것이 찬란히 피어 있지 않은가.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가을꽃 여행에서는 동근이질풀, 꽃무릇, 구절초, 쑥부쟁이, 미역취, 노랑물병신, 산국 등 다양한 풀꽃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천원(天圓) 오천석 선생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전(Vision)을 보려면 산에 올라가야 한다. 평지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는 고독한 시간을 가진 비전의 세계,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자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육 현장이다. 교사의 진심이 닿았을 때 학생들은 마음과 가슴을 열 것이다. 사랑이 꽃피는 자연의 교실로 우리 아이들을 불러들이자. 교육은 나라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無 等 鼓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인상 깊게 쓰인 영화가 있다. 1968년에 제작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다.

이 곡은 영화 속 주인공이 던진 뼈다귀가 하늘로 치솟으며 우주선으로 변하는 장면에서 ‘랑’ 터져 나온다. SF영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가장 강력한 장면이기도 하다. 이 음악을 들을 때면 반사적으 으 유년형 우주선과 광활한 우주가 떠오른다.

2009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를 관람할 때의 충격을 기억한다. 당시 100만 명이 넘는 한국 관객들을 흥린 건 바로 화려한 3D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후 ‘라이프 오브 파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볼만한 3D영화는 거의 없었다.

개봉날 아이맥스 3D로 ‘그래비티(Gravity)’를 보고 온 지인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관람 당일, “기대가 크면 조금이라도 실망하지 않을까?”했던 생각은 영화가 시작하면서 날아가버렸다. SF영화의 스토리는 단출하다. 지구로부터 600km 떨어진 우주에서 허블 우주망원

경을 수리하는 주인공이 역경을 뚫고, 지구로 귀환하는 이야기다.

첫 장면부터 압권이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우주, 그 안의 지구, 우주 속 한 점으로 움직이는 인간. 20여분에 달하는 통테이크 장면, 우주복을 입은 주인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주의 모습 등은 황홀하다.

영화가 끝난 후, 다른 어느 때보다 객석에 앉아있는 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영화 속에 흠뻑든 음악들을 다시 들으며, 또 한번 우주로의 여행을 꿈꾸는 듯 마지막 자막이 올라갈 때까지 다들 자리를 지켰다.

‘그래피티’는 국내 개봉 2주만에 150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 수익도 제1회 1억 달러의 세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SF영화의 새로운 역사, 궁극의 3D영화라는 평들도 쏟아지는 중이다.

‘90분간의 황홀한 우주 여행’을 놓치지 마시라. 2D가 아닌, 3D, 그 중에서도 아이맥스 3D 관람은 필수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리의 옷 한복알리기, 대중스타들이 앞장서야

연젠가 모 여성 잡지에서 결혼한 신부들에게 결혼할 때 든여 해운 혼수나 결혼용품 중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복”이라고 답한 여성이 57%나 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그 이유는 한복은 나름대로 가격도 비싼데 결혼용 혼수 한복이 너무 더 비싸게 사게 됐고, 그만큼 값어치를 지불한 다른 혼수에 비해 사용 횟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한복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 의해 자꾸만 더 멀어지고는 것 같다. 즉 별로 쓰임새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명절이나 생일 때 혹은 어떤 외부 행사 때에서 췌겨 입어보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러던 와중에 작년에는 서울의 신라호텔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에게 식당에 출입을 시키지 않아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한복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그 때문에 분노를 느낀 국민이 한두 명일까.

이 참에 한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우리의 잘못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즉 지난 수십 년간 한복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온 사대중 하나는 폭력시위 현장에 두루마기나 한복을 입고 시위를 주도하는 모습들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었다. 또한 친박인 사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어김없이 흰색 한복을 걸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정책에 반대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할 때도 흰색 한복 차

림의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이런 모습들이 해외투표으로 퍼져나가면 외국인들은 한복을 일컬어 싸울 때 주로 입는 의상이라고 착각하지나 않을까.

대통령 내외가 우리 한복을 입고 해외 순방길에 나서거나 국민 만찬장에 한복차림으로 나서듯,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과 한류 스타들이 앞장서서 한복을 입어주고, 유명 국가대표 운동선수나 정치인,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중스타들이 너도나도 한복을 입어주고 그런 장면이 해외에 퍼지면 좋겠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산수동